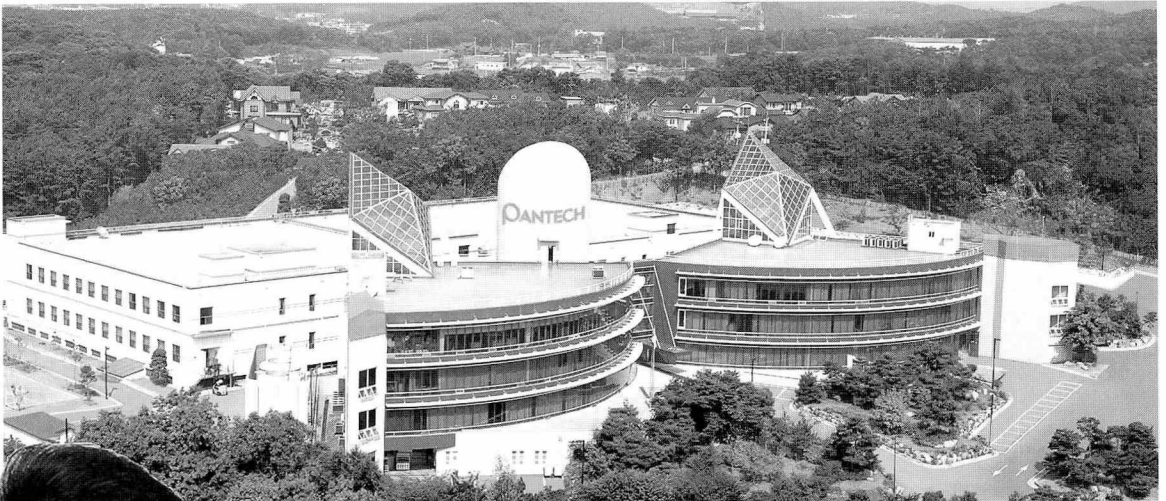


내수 3강을 넘어 세계 빅5 도전

최근 SK텔레텍 전격 인수... 글로벌 메이저 도약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계열(부회장 박병엽)은 무선호출기 사업을 시작으로 IT업계에 이름을 알리면서 2001년 당시 휴대폰 3위 업체였던 현대큐리텔을 인수해 업계를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인수하면서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그대로 고용한 일도 놀랄만한 일이었으나 인수 1년 만에 경영실적을 흑자로 전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분하던 국내 휴대폰 시장을 재편했다는 데 관련업계는 시선을 달리하고 있다. 팬택계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국내 휴대폰 4위 업체인 SK텔레텍마저 전격 인수해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팬택 김모공장

팬택계열은 큐리텔을 인수하고 이듬해 2003년 내수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해 단번에 빅3 반열에 올라선다. 휴대폰 업계를 포함해 중견 업체가 메이저를 상대로 불과 1년 만에 경쟁구도를 형성하기란 좀처럼 찾기 힘든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난해 메가픽셀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라인업을 확대, 17~18%의 점유율로 LG전자와의 격차를 7%대로 좁히더니 올 1월에는 점유율이 20%까지 상승해 2위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LG텔레콤) 의존도가 높은 LG전자와 달리 팬택계열은 3개 사업자에 고르게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중·고가 비중을 늘려 수익성 확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SK텔레텍을 인수한 것은 그야말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팬택계열의 향후 행보에 휴대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수시장 2위 눈앞

외형적인 결과만 보면 팬택계열은 이번 인수를 통해 SK텔레텍의 점유율 7~8%를 합쳐 점유율 25%대로 LG전자를 제치고 업계 2위를 차지하게 된다.

'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캠코더폰 '큐리텔 PH-L4000V'



매출액도 올해 목표인 4조2,000억원에 SK텔레텍의 7,000억원 대를 더해 단숨에 5조원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고가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에니콜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스카이'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의 시장에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DMB와 W-CDMA 사업에서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점쳐지며, 현재 진행 중인 자체유통망 구축 준비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팬택계열 박병엽 부회장은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가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맞대결이 가능해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출도 중국시장을 비롯해 동남아, 동유럽 및 아프리카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사업제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내수와 수출에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중견 휴대폰 업체 한 관계자는 "그간 팬택계열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했다면 이번 인수로 기술 및 시장선도를 겨냥한 공격적인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수에 따른 임직원 승계 문제도 큐리텔 인수 때와 마찬가지로 3년간 구조조정 없이 100% 인수할 것으로 밝혀 하반기까지 그룹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34개국에 자체브랜드 공급

내수시장의 성공적인 진출과 함께 해외수출도 연평균 50%를 넘는 성장률로 지난해 21개국에 이어 올해도 34개국에 자체브랜드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량도 지난해 1,800만대에서 올해 수출 30억 달러를 포함해 최대 3,000만대를 판매해 세계 5위권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제까지 ODM과 OEM 사업이 회사기반을 마련했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체브랜드 강화에 사업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팬택계열은 지난해 자가브랜드 공급을 개시한 이래 전체 매출 가운데 자가브랜드 비율을 31%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미주·유럽·중국·러시아·동남아 등 5대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경영체제를 구축해 자가브랜드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중국시장은 지난해 9월 CDMA 라이선스를 획득한 다음 올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핵준제(核准制) 세부기준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해외기업으로는 유일하게 GSM 라이선스를 획득, 본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련시에 위치한 현지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120만대에서 400만대까지 확충하고, 일부 모델은 해외로 수출해 현지화 기반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복안.

이와 함께 메가픽셀 카메라폰, 웰빙 체온측정폰, 무선 데이터 전송 블루투스폰 등 중국시장에만 올해 20여종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하반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 및 광고를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단일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000만대 자가브랜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미주시장은 LA 현지법인을 미주본사로 개편해 6개 거점도시에 지점을 설립하고 브랜드 현지화를 통해 1,200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시장도 암스테르담 물류법인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5개국과

오스트리아 빈 유럽지사로 동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고, 러시아 시장은 블루투스폰, 지문인식 폰 등 프리미엄 단말기를 150만대 이상 판매해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CIS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병엽 부회장은 “지난해가 제품라인업을 구축한 원년이였다면 올해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중국과 미주 등 기존 전략시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동유럽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과 R&D 강화에 주력

올 4월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팬택계열이 세계 휴대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한국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며 세계시장에서의 비약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팬택계열을 세계 휴대폰 시장의 판도변화를 주도할 차세대 주자로 지목했다.

이처럼 팬택계열이 내수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디자인과 연구개발에 쏟는 투자와 기대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말 국내 최초로 출시한 30만화소 카메라폰(모델명: PD-6000)이 50만대 이상 팔리는 히트를 거두면서 메가픽셀 카메라를 필두로 게임폰, 지문인식폰 등 차별화 된 디자인을 컨셉으로 단시일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성공하게 된다.

메가픽셀폰과 관련 지난해 팬택계열은 국내 휴대폰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판매량에서도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해 기술 및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사업전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다. 디자인을 부가가치 요소로 삼기 위한 시도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3월 세빛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목걸이형 MP3폰(모델명: PH-S4000)과 캠코더폰(모델명: PH-L4000V)이 세계 최고 권위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했고 최근 키패드가 기존 방식과는 달리 LCD 양쪽으로 일렬로 배치된 셀카폰을 출시하는 등 디자인 컨버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 양성과 차세대 휴대폰 디자인 발굴을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지난해 말 개최해 올 하반기에 출시될 신제품 디자인에 다수 채택, 철저히 시장중심의 신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R&D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사업.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국내외 특허 및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최근 4년간 61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4200억원과 연구인력을 2,30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35종, 수출 85종 등 총 120종의 첨단 컨버전스 휴대폰을 적기에 출시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방침.

이외에도 지난 2002년 ‘팬택 아카데미(Pantech Academy)’를 출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109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임직원 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97년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지 8년 만에 매출 60배 이상을 넘보고 있는 팬택계열은 기술지상주의를 앞세워 수익성을 기반으로 오래가는 기업을 목표로 휴대폰 업계를 넘어 한국경제의 성공모델로 자리잡는다는 야심이다.☑



큐리텔 PH-S6000 블랙 오픈(위)과 큐리텔 셀카폰 PT-S100실버(아래)